

제25대 컴퓨터교육과 학생회
<SoCKET(소켓)>
- 제8회 확대 운영위원회 -

일시: 2023/08/24 오후 10시 35분

회차: 25-08

장소: Google Meet 온라인 플랫폼

정학생회장	부학생회장	총무/Deep:Running장/CMD장
서기	문화행사부장	사회부장
선전편집부장/COM_ON장	EGG장	COFA장
CE:BA장	HFS장	1학년 과대표
1학년 부과대표	2학년 과대표	악성코드장/2학년 부과대표
3학년 과대표		

총원: 16 출석: 10 결석: 6

■ 보고안건

1. 회장단 보고

2. 집행부 보고

- 1) 문화행사부
- 2) 사회부
- 3) 선전편집부

3. 소모임, 학회 보고

- 1) EGG
- 2) CMD
- 3) CE:BA
- 4) COM_ON
- 5) COFA
- 6) 악성코드
- 7) Deep:Running
- 8) HFS

■ 논의 안건

1. 소모임 활동비 지원 사업
2. 확대운영위원회 오프라인 회의 날짜
3. 개강총회 날짜

■ 단위별 진행 상황 / 기타 안건

1. 수강신청 관련 건의

<오후 10시 35분 개회>

[정학생회장] 화면 잘 보이실까요?

[부학생회장] 네.

[정학생회장] 감사합니다. 우선 정족수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정학생회장 회의 참석했습니다. 부학생회장님 참석하셨나요?

[부학생회장] 참석했습니다.

[정학생회장] 총무 참석하셨나요?

[총무/Deep:Running/CMD장] 네.

[정학생회장] 다음 서기님 참석하셨나요?

[서기] 참석했습니다.

[정학생회장]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문화행사부장님 아직 못 들어오셨고, 곧 들어오실 예정인 것 같습니다. 사회부장님 오늘 불참하셨고, 선전편집부장님 참석하셨나요?

[선전편집부장/COM_ON장] 네 참석했습니다.

[정학생회장] 다음 EGG장님 참석하셨나요?

[EGG 부회장] 네.

[정학생회장] 네 감사합니다. 다음 COFA장님은 오늘 불참하셨습니다. 다음으로 CE:BA장님 참석하셨나요?

[CE:BA장] 네.

[정학생회장] 네 감사합니다. 다음 HFS장님 오늘 불참하셨습니다. 1학년 과대표 참석하셨나요?

[정학생회장] 말씀을 안 하셔서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잠시만요. 지금 1학년 과대 부과대가 선출이 끝났죠?

[1학년 과대표] 네 끝났습니다.

[정학생회장] 네 그리고 지금은 이제 그 선거 이후로는 지금 부과대표로서 있는 거고요.

[1학년 과대표] 네 그렇습니다.

[정학생회장] 네 잠시만요. 네 그런데 아직 (1학기 과대표와 부과대표 임기가 안 끝나서) 민구님은 아직 1

학년 과대표로서 지금 저희가 개인적으로 판단을 했었는데 이번 회의까지만 과대표로서 참석하시고 그다음 회의부터 부과대표로서 참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학년 과대표] 네 알겠습니다.

[정학생회장]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1학년 과대표 참석하셨고 부과대표가 아직 참석 못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2학년 과대표님 참석하셨을까요?

[2학년 과대표] 네 참석했습니다.

[정학생회장] 네 감사합니다. 2학년 부과대표님 참석하셨나요?

[악성코드장/2학년 부과대표] 참석했습니다.

[정학생회장] 다음으로 3학년 과대표님은 오늘 불참하셨습니다. 그리고 악성코드가 지금 회장이 바뀐 거로 알고 있어서, 혹시 악성코드장님 오셨을까요?

[악성코드장/2학년 부과대표] 네 저 이번 학운까지만 2학년 부과대표랑 악성코드장이랑 겸임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정학생회장] 네 감사합니다. 지금 헛갈려서 그러는데 혹시 부회장님 출석 몇 명 했는지 알 수 있을까요?

[부학생회장] 지금 문화행사부장 빼고 다 들어왔을 거예요.

[정학생회장]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못 들어오신 분이 사회부장님, COFA장님, HFS장님, 1학년 부과대표님, 그다음에 3학년 과대표 분께서 결석하셔서 총원 16명 중 출석 11명 결석 5명으로 현재 시각 2023년 8월 24일 오후 10시 35분 제8차 컴퓨터교육과 학대운영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회의일은 방금 말씀드렸고 회의 장소는 온라인 미팅으로 진행됩니다.

■ 보고안건

1. 회장단 보고

[정학생회장] 우선 저희 컴퓨터교육과 학생회 소켓의 회장단 보고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회장단은 현재 개강총회로 인해 많은 논의 중이고 자료집과 그리고 여러 예산안 결산안 작성 중입니다. 이상입니다.

[정학생회장] 잠시만요. 10시 36분 1학년 과대표님께서 혹시 기기를 바꾸신 건가요?

[1학년 과대표] 네 노트북으로 바꿨습니다.

[정학생회장] 네 알겠습니다.

2. 집행부 보고

[정학생회장] 다시 집행부 보고로 넘어가겠습니다. 문화행사부 부장님께서 보고 먼저 해주시길 바랍니다.

[문화행사부장] 문화행사부 저번 회의부터 지금까지 특별히 진행한 건 없습니다.

[정학생회장] 네 감사합니다. 다음 사회부장님 오늘 불참하셨는데, 사회부도 이제 크게 짝조 이벤트 포스터 제작 제외하고는 크게 보고할 안건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선전편집부장님 보고해주세요.

[선전편집부장/COM_ON장] 네 최근에 이제 방학 중에 선원부원들끼리 모여서 이제 과방 청소를 진행했고 필요 없는 물건도 버리고 미관도 조금 개선을 했습니다. 이거 외에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학생회장] 네 감사합니다.

3. 소모임, 학회 보고

[정학생회장] 다음은 소모임 학회 보고로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EGG 먼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GG 부회장] 네 저희는 방학 동안 해커톤같이 대회를 하나 열어가지고 하루 만에 게임을 만드는 그런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정학생회장] EGG 내에서 개최를 한 건가요?

[EGG 부회장] 네 EGG 내에서 3팀 정도, 이제 4명씩 3팀 정도 만들어 가지고 24시간 만에 게임 만들기를 도전해서 성공적으로 잘 마쳤습니다.

[정학생회장]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CMD 보고해 주세요.

[총무/Deep:Running장/CMD장] 네 저희 CMD 이번에 신입 부원들 다 뽑아서, 방학 시작하고 나서 지금 7주차 8주차 정도 됐는데 각 부서 나눠서 계속 스터디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학생회장]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CE:BA 보고해주세요.

[CE:BA장] 저희 CE:BA는 사범대 체육대회 예선전을 대비해서 한 번 모임을 진행하고 이제 이번 주 일요일 날 예선전 진행 예정입니다.

[정학생회장] 네 예선전 파이팅입니다. 다음으로는 COM_ON 보고해주세요.

[선전편집부장/COM_ON장] 네 COM_ON은 특별히 보고할 것 없습니다.

[정학생회장] 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는 COFA장님께서 불참하셨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COFA 부회장] 저 대체로 와서 발표해달라고 하셔서 왔는데 (보고해도 될까요?)

[정학생회장] 그러면 보고하실 수 있으면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COFA 부회장] 저희는 일단 저희 올해 초에 3월 15일에 동아리 신입 부원을 선발하였고요.

[정학생회장] 잠시만요. 말씀하신 그런 보고 사항들은 저희가 나중에 논의 안건에서 소모임 활동비 지원 사업 쪽에서 이제 다른 소모임장분들께 발표하실 내용이고 저희는 지금 이제 저번 회의 이후로부터 이번 회의 사이에 어떤 활동을 했었는지 이제 보고하는 시간이라서요.

[COFA 부회장] 네 저번 회의가 언제인지 몰라서 일단은 뭐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정학생회장] 잠시만요. 저번 회의를 언제였는지 말씀드리면 보고를 하실 수 있는 건가요?

[COFA 부회장] 그 사이에 뭐가 있으면은 제가 보고를 드릴 텐데 그 사이에 활동한 게 없으면은 딱히 보고드릴 게 없어서요.

[정학생회장] 저희가 (저번 회의는) 6월 30일에 진행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COFA 부회장] 저희 7월 24일에 해외 여행 관련해서 온라인 회의 그리고 오프라인 회의를 마쳤습니다.

[정학생회장]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학생회장] 다음으로는 악성코드 발표해 주세요.

[악성코드장/2학년 부과대표] 저희 여름방학 취미 합주랑 기타 스터디 방학 동안 꾸준히 진행 중이고요. 이번 주 일요일에 취미 합주 마무리하면서 영상 촬영 계획 중에 있습니다.

[정학생회장] 네 감사합니다. 다음 Deep:Running 발표해주세요.

[총무/Deep:Running장/CMD장] 네 저희 방학 중에 신청받아서 다 같이 남산 타워 쪽 이제 지금 등산하고 여러 활동하고 있습니다.

[정학생회장] 네 감사합니다. 다음 HFS장님이 오늘 불참하셨는데 혹시 대리로 오신 김민지 학우님께서 따로 보고하실 거 있을까요?

[HFS 부회장] 네 저희 7월 초에 MT 한 번 다녀왔고요. 7월 8월 동안 정기적으로 운동도 진행을 했고 또 앞으로 있을 9월에 한 번 MT를 가게 되기 때문에 그것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학생회장]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보고 안건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 논의 안건

1. 소모임 활동비 지원 사업

[정학생회장] 논의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논의 사항으로는 저희 소모임 활동 및 지원 사업에 관한 논의가 있겠습니다. 우선 이 논의를 진행하기 전에 저희 이번 회의를 이제 하기 전에 저희가 미리 공지드렸었던 소모임 활동비 지원 사업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각 소모임장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각각 본인의 소모임이 어떤 활동을 하였고 앞으로 어떤 활동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5분 내외로 발표를 하시게 될 겁니다. 발표 이후에 지금 확대 운영위원회 독방에 올려드릴, 독방에 없으신 분들은 제가 나중에 개인톡으로 보내드릴 텐데, 이 링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각각의 소모임들을 평가를 해 주시면 됩니다. 평가는 각 소모임장과 집행부장들 회장단 각 학년의 대표와 부과대표분들 모두 지금 투표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만약에 이제 소모임장분이 참석하지 못하셨을 경우 확대운영위원회의 멤버가 아닌 부원 중 1명이 권한대행으로 오셔서 발표와 평가를 할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혹시 제가 확대 운영위원회 독방에 올려드린 이 링크 지금 모두 확인하셨을까요?

[COFA 부회장] 저 링크를 못 받아서 개인 톡으로 가능할까요? 감사합니다.

[정학생회장] 네 채팅방에 올라온 링크로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두 확인이 끝나면 그때 이후로 진행하겠습니다. 순서는 이 평가표에 있는 소모임 순서대로 진행을 할 것이고 첫 번째가 악성코드, 그다음에 투표 끝나면 다음으로 CE:BA, 그 이후에 COFA, 다음으로 EGG, CMD, 딥러닝, HFS를 마지막으로 끝내겠습니다. COM_ON 같은 경우는 이번 회의를 기점으로 이제 폐쇄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번 평가에서 제외된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모두 혹시 확인되었을까요?

[부학생회장] 네.

[COFA 부회장] 네.

[정학생회장] 혹시 확인 안 되신 분들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학생회장] 저 진행하기 전에 성균관대 사범대라는 이름으로 지금 회의에 누군가가 들어온 것 같은데 (누구신가요?)

[2학년 과대표] 죄송합니다. 지금 방금 집에 도착해가지고 아무거나 눌러버렸네요.

[정학생회장] 네 그럼 모두 그럼 확인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각 소모임장 여러분들께 화면 공유의 권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정학생회장] 혹시 악성코드장님 지금 화면 공유하실 수 있을까요?

[악성코드장/2학년 부과대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학생회장] 혹시 본인이 준비하신 시각 자료가 있으면은 화면 공유하시고 없으시면 그냥 말씀으로만 하셔도 됩니다.

[악성코드장/2학년 부과대표] 보이시나요?

[정학생회장] 네 잘 보입니다.

[악성코드장/2학년 부과대표] 그러면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학기 악성코드장을 맡게 된 장지우입니다. 악성 코드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소개, 활동 보고, 활동 계획, 활동 정리 순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로 악성코드에 대한 소개입니다. 악성코드는 공연을 준비하기 위한 주별 합주 및 기타 스터디 취미 합주를 진행하는 컴퓨터교육과 밴드 소모임입니다. 인스타그램에서 악성코드를 검색하여 악성코드의 활동을 담은 기록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1학기부터 여름학기에 대한 활동 보고입니다. 우선 악성코드는 2월에 사범대 새내기 배움터 공연을 시작으로 3월에 금잔디 문화제 오디션 준비를 하였고 4월부터 6월까지의 음악코드 연합공연과 기타 스터디 그리고 7월부터 8월까지 그리고 현재까지는 취미 합주와 기타 스터디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1학기 와 여름학기 동안 악성코드는 총 10팀을 구성하여서 총 15곡을 공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좀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6월 25일에 사범대 새내기 배움터 공연에서 두 팀으로 총 4곡을 공연했고요. 그 다음에 교육학과 소모임인 음악교육과의 연합 공연에서 4월 2일 선곡 회의를 시작으로 6월 16일까지 연습을 한 뒤, 6월 18일에 음악 코드라는 이름으로 연합 공연을 올렸습니다. 악성코드의 경우는 7팀으로 구성하여 총 8곡을 올렸으며, 이 외에도 연합팀으로 구성된 6곡 또한 공연에 올라갔습니다. 다음으로는 여름 방학 기간 동안 취미 합주를 진행을 했습니다. 7월 6일에 회의를 진행하여 현재까지 합주를 진행하고 있고, 8월 27일에 커버 영상을 촬영해서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계정에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현재 한 팀으로 구성하여서 총 3곡을 연습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시 진행되었던 기타 스터디입니다. 기타 세션장이 기타 세션 부원들에게 기타 연습 방법과 악보 보는 방법을 지도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였고요. 4월부터 5월까지의 주된 목적을 공연을 위한 스터디를 진행을 하였고요. 7월부터 8월은 공연 목적이 아닌 자유롭게 기타를 배우고 싶은 부원들 또한 기타 스터디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하여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세 번째 활동 계획입니다. 현재 계획 중인 악성코드의 대략적인 활동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9월부터 11월까지의 정기 공연 준비를 한 뒤 공연을 올릴 계획이며, 11월부터 1월까지의 겨울방학 취미 합주 그리고 1월부터 2월까지의 내년도에 있을 새내기 배움터 공연 대비 합주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와 별개로 기타 스터디도 상시 진행할 예정입니다. 주차별로 자세하게 살펴보면, 1주차부터 2주차까지는 신입 부원 모집, 6주차까지는 스터디와 정기 공연 대비 합주를 하고, 중간고사 기간과 기말고사 기간에는 휴회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9주차부터 12주차까지는 합주 및 정기 공연을 마무리 지을 예정이고요. 겨울 학기 같은 경우는 1~2주차에 신입부원을 모집하고, 3주차부터 6주차까지는 취미 합주 및 기타 스터디를 진행하고, 7주차부터 10주차는 새내기 배움터 공연 대비 합주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활동 정리입니다. 1학기부터 여름학기에 대한 결산안과 2학기부터 겨울학기에 대한 예산안을 보여드릴 텐데 해당 결산안은 악성코드 세션들의 개인 악기 구매 및 대여 비용, 개인 공연 의상 구매 비용, 개인 연습실 대여 비용, 개인 악보 구매 비용 등 개인 비용과 회식 비용과 같은 사적인 비용들은 제외하고 오로지 악성 코드 세션들이 합주와 공연 준비를 목적으로 소비한 지출 내역임을 알려드립니다. 1학기부터 여름학기 지출 내역에 대한 것은 이 이미지를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비고란에 40% 부담과 50% 부담이라고 적혀 있는 것은 연합 공연인 만큼 지출에 대한 분배를, 지출에 있어서 분배가 이루어졌는데 이 과정은 공연 준비 과정에서 음악교육과의 임원진 분들과 회의를 통해서 결정한 수치입니다. 또한 마지막에 10번에 티켓 판매 수익금 12만2500원 같은 경우가 이제 지출 금액에서 마이너스 해서 포함이 되었고요. 마지막으로 여름방학 취미 합주, 합주실 대여 비용까지 해서 1학기부터 여름 학기 동안 지출한 내역입니다. 확인 끝나셨으면 다음 예산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학기~겨울학기 예산안입니다. 2학기 활동의 경우 우선은 공연을 진행 한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공연 방식이 악성코드만의 단독 공연이 될지 아니면 다른 소모임과의 연합 공연이 될지는 확정되지 않아서 예산안 같은 경우는 1학기 1학기 때 나온 결산안을 토대로 제작이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악성 코드 정기 공연에 125만 원 정도를 책정하고 있고, 겨울방학 취미 합주에는 18만 원 그리고 세터 공연 대비 합주에는 30만 원 정도가 소요될 것이라고 책정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수치는 오른쪽 비고란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활동 정리를 해보자면 1학기부터 여름 학기 동안은 합계가 총 142만 원 약 142만 원 정도를 지출을

하였고, 2학기부터 겨울 학기 동안에는 다음과 같은 활동을 통해서 약 173만 원 정도를 예산안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학기에도 악성 코드는 활발하게 활동할 예정이니 앞으로의 활동도 많이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컴퓨터 교육과 밴드 소모임 악성 코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학생회장] 열정적인 발표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는 CE:BA 발표가 있겠습니다. CE:BA장님 준비되셨나요?

[CE:BA장] 네.

[정학생회장] 네 바로 발표 시작해 주세요.

[CE:BA장] 안녕하세요. 세바 농구 동아리장 허민석입니다. 저희 세바는 이제 컴퓨터 에듀케이션 베스켓볼 약자로 그런 동아리고요. 저희 세바의 설립 목표는 학우들 간의 친목 및 운동입니다. 컴퓨터교육과 내 운동 동아리가 없더라고요. 원래 이전까지는 축구 동아리나 야구 동아리 이런 게 있는데 농구 동아리는 컴퓨터 교육과 내에 없었고 제가 이걸 만들 시기에는 어떠한 운동 동아리도 없어서, 술 없는 뒤풀이를 하는 건 강하고 건전한 동아리를 만들어보자는 취지에서 세바를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1년 반 넘게 활동을 했는데 2023년 1학기에는 세바 2기를 모집을 했고, 정기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23학번을 새로 모집을 했고요. 월요일 오후마다 꾸준한 정기 활동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성균관대 내 농구대회 농성배는 시험 기간이 겹치고 교육 실습 중인 인원들이 많아서 부득이하게 출전을 못했고요. 현재는 총 18명의 동아리 부원들이 속해 있습니다.

2023년도 2학기 및 겨울방학 활동 계획은요. 대회 출전 및 정기적인 연습입니다. 일단 지금 다가오고 있는 사범대 체육대회 농구 예선전에 출전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2학기에도 월요일 오후마다 정기적인 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세바 로고 및 유니폼도 제작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예산안을 좀 간단하게 짜봤는데요. 일단은 저희 예산안은 이걸 다 지원해달라는 게 아니고 그냥 이런 지출이 있다라는 거고요. 6명 정도가 평균적으로 참석을 하고요. 한 번 활동할 때마다 6천 원 정도의 음료수 비용이 발생하고 이번 학기 한 10회 정도 진행한다고 하면 6만 원 정도가 소요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세바 농구 유니폼 및 바람막이를 구매할 예정인데, 이것 또한 한 벌당 6만 원이고 현재 활동 중인 부원이 이제 교환 학생이랑 군대를 다녀오는 학우들을 제외하면은 약 10명 정도 있는 것 같아서 약 60만 원 정도가 소요될 것 같고요. 세바가 이제 또 대회에도 출전할 건데 농성배 같은 경우는 대회 출전비가 약 5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런 비용이 있고 그다음에 세바 뒤풀이도 한 달에 한 번 정도 공식적으로 진행할 예정인데 정식으로 이때 평균 6명 정도가 참석할 예정이고, 인당 2만 원 정도를 잡고 세 번을 진행한다고 했을 때 약 36만 원이 소요될 것 같아서 총 107만 원 정도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소모임 활동비를 지원받는다면 이 활동들을 진행하는 데 더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학생회장]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코파가 발표하겠습니다. 코파장님은 오늘 불참하셔서 코파 발표 대리인께서 발표하실 예정입니다. 준비되셨나요?

[COFA 부회장] 잠시만요.

[정학생회장] 네.

[COFA 부회장] 보이시나요?

[정학생회장] 네 잘 보입니다.

[COFA 부회장] 저희는 이제 회장님이 불참하신 관계로 부회장인 제가 대체해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설립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학기 중 1회에 국내 여행 그리고 방학 중 1회 해외 여행을 다니면서 여행을 통한 선후배 그리고 동기간의 교류 및 친목 도모를 위해서 설립이 되었습니다.

먼저 2023년 상반기 활동 보고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2023년 3월 15일에 동아리 신입 부원을 선발하였고 3월 26일에 동아리 회식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3월 31일 그리고 4월 4일에 1학기 활동과 관련해서 두 차례에 걸쳐서 온라인 회의를 진행하였고요. 4월 14일에 한강 노들섬 나들이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5월 13일부터 5월 14일에 첫 번째 국내 여행인 강화도로 글램핑을 갔었고요. 6월 28일부터 8월 9일까지 총 3회에 걸쳐서 1차 2차 오프라인 회의와 3차 온라인 회의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8월 29일부터 9월 1일까지 라오스의 해외 여행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2023년 하반기 활동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것은 정해진 게 없고 저희가 원래 학기가 시작하고 나면 그때부터 회의를 진행하는 동아리여서 구체적인 건 정해진 건 없지만 늘 그랬다시피 학기 방학 중 국내 여행 1회에서 2회를 계획하고 있고요. 방학 중 해외여행 혹은 국내 여행 1회 다녀올 예정입니다. 그리고 여행 관련 회의도 3회에서 4회 이상 그리고 회식 또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결산안과 예산안의 경우는 아직 결산안을 제가 회장님께 전달받은 적이 없어서 준비하지 못하였고요. 그리고 예산안 또한 아직 구체적인 활동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학생회장]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EGG 발표가 있겠습니다. EGG장님이 오늘 불참은 하시지 않았는데 오늘 발표 진행은 이승민 학우님께서 진행하실 예정입니다. 준비되었나요?

[EGG장] 네 잘 들리시나요?

[정학생회장] 네 잘 들립니다.

[EGG장] 네 안녕하세요. 말이 좀 꼬인 것 같기는 한데, 사실 EGG장 대리로 제가 온 게 아니라 제가 이번년도 이지지 장이고 그간의 대리를 재우가 지금 대신해 주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아마 제가 와서 발표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1학기 동안은 제가 개인 사정이 있어가지고 학교를 못 와서요. 일단은 이지지 2023년도 진행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개설된 동아리로서 1학기 동안은 개인 역량 강화 및 신규 부원 모집을 위해서 애쓰면서 현재 유튜브에 영상 강의를 남김으로써 추후에도 사용할 수 있는 유니티 및 게임 개발 강의를 지금 지속적으로 생성을 해왔고, 이를 토대로 팀별 그룹화 활동을 통해서 각 팀별 서로 간의 피드백과 영상 강의에 대한 리뷰 그리고 과제를 진행을 함으로써 학생들의 C# 및 유니티 개발 실력을 어느 정도 올렸습니다.

금년도의 에그의 목표는 이제 추후 또 진행이 될 게임 개발 부분에 집중이 되어 있는데요. 금년도의 최우선적 목표는 2023년 3~4분기에 진행될 유니티 게임잼입니다. 에그 유니티 게임잼 같은 경우 에그 동아리 내부에서 직접적으로 실시하는 대회로서, 동아리 부원들이 팀을 모아서, 팀장 및 에이스 그리고 팀원으로 나누어진 역할에 따라 각자 팀을 꾸려서 게임을 한 학기 내내 만들어가지고, 학기 말에 서로 발표를 하고

해당 대회 심사 결과를 내놓는 방식입니다. 해당 성적이 좋은 팀 같은 경우에는 컴에듀니온에 발표할 준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는 2학기 여름방학 동안 팀 구성 및 팀 빌딩에 관련된 회의를 다수 거쳤었고요. 이를 토대로 만들어진 팀의 어떤 팀워크나 검증을 위해서 얼마 전에 해커톤을 통해서 1박 2일 단기간 동안 개발을 같이 진행을 하면서, 개인 개발뿐만이 아니라 어떤 협업 개발에서의 중요한 점과 같이 진행되어야 되는 점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한 강의를 같이 진행했습니다.

이를 위한 특강도 구재우 동아리 부회장이 같이 진행을 해 주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번 연도를 위해서 이번 연도 2학기에 이루어질 대회를 위해서 8월 23일부터 9월 3일까지 팀 빌딩을 다시 확인하고 해커톤에 대한 결과를 뽑은 뒤에, 9월 4일부터 정식으로 게임잼을 개최하여 12월 2주차까지 게임잼의 결과를 발표를 하고 발표를 한 걸 토대로 컴에듀니온에 출시를 할 생각입니다. 이번에 진행된 게임잼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쪽에 집중을 하고 있다 보니까 2학기 때에도 강의 영상과 함께 같이 동아리 활동을 진행을 하고 팀별로 단체 활동을 따로 날짜를 잡아가지고 진행을 할 수 있는 쪽으로 이끌어 나갈 예정인데요.

저희 쪽에서 현재까지 지출된 예산은 사실상 제 개인 사비로 나가가지고 따로 어떤 적극적으로 작성한 내용들은 없지만 2학기 동안 이루어질 모임들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중요시되게 나갈 예산은 하나로만 잡고 있습니다. 바로 12월 20일부터 22일까지 혹은 13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될 동아리 게임잼 마지막 기간 때 공간 대여를 활용을 함으로써 그간 온라인으로만 소통을 하던 부원들이 따로 모여서 같이 최종적으로 개발 단계를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그리고 또한 선배들 혹은 동아리에 있는 다른 인원들에게 도움을 오픈라인으로 받을 수 있도록 공간 대여를 이루어서 방학 기간 때 같이 합숙 훈련을 좀 진행을 할 생각입니다. 두 번째로는 9월 중순쯤에 이루어질 MT를 지금 바라보고 있는데 아직은 MT 관련된 부분에서는 확정안이 없어가지고 예산을 말씀드리긴 어렵고 현재 실질적으로 확인된 예산은 12월 13일부터 15일 혹은 14일부터 15일간 진행될 공간 대여 예산으로 한 20만 원 정도가 소모될 예정입니다. 네 예그 발표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정학생회장] 네 감사합니다. 다음 발표는 CMD가 있겠습니다. CMD장님 준비되셨을까요?

[총무/Deep:Running장/CMD장] 네 잠시만요.

[정학생회장] 네 그러면 준비 기다리는 동안에 여러분 모두 평가지 잘 작성하고 계신가요?

[COFA 부회장] 네.

[정학생회장] 이 평가지는 최대한 중립적이고 객관적으로 작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CMD장님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Deep:Running장/CMD장] 네 컴퓨터교육과 프로그래밍학회 CMD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CMD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자면 저희는 컴퓨터교육과 유일의 프로그래밍 학회로서 학우분들의 코딩 실력 및 개발 역량에 도움을 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단순 코딩뿐만 아니라 개발자로서 필요한 능력에 대한 전반적인 레벨을 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현재 하고 있는 주요 활동으로는 방학 중에는 각자 파트를 나누어서 각 분야에 대한 스터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스터디는 인공지능, 안드로이드 앱 개발, 백엔드, 프론트엔드, 아두이노 이렇게 5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학기 중에는 스터디를 기반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저희 컴퓨터교육과에서 매년 말에 열리는 컴에듀니온이라는 교내 대회에 참가하거나 교내 해커톤에 참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CMD는 이제 프로그래밍 학회답게 깃허브를 전폭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활동한 내역이 여태까지도 되게 많고 방학 중에도 하고 있는 내용이 많아서 오늘 다 소개해드리지는 못할 것 같아서 깃허브를 사진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CMD 깃허브에 들어가 보시면은 CMD가 활동한 내역들이 있고 이런 식으로 각자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는 프로젝트를 공유하거나 학습한 내용을 각자 올리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학기부터는 온라인 활동에 있어서 디스코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데요. 각자 이제 각 파트 스터디마다 시간이 되면은 디스코드 상에서 모여서 온라인으로 스터디를 하고 각자 학습한 내용을 공유하거나 과제를 제출하는 식으로 깃허브에 과제를 제출하는 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CMD 계획에 있어서 현재 하고 있는 활동 외에도 추가적으로 진행할 활동들이 몇 개 있는데 기존에 있던 CMD 형식에서 조금 더 다양한 것을 추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특강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요. 현재 기업 인사분이나 졸업생 멘토 컨퍼런스 참여 등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현재 대기업에 다니시는 분들이 컨택이 돼서 발표를 진행할 준비 단계에 있는 분들도 몇 분 있고, CMD가 컴퓨터교육과 유일의 학회이다 보니까 이 활동을 증진하자라는 측면에 있어서 스터디 및 프로젝트 시작과 함께 각 스터디에 일정 이상의 지원금을 주어서 교재를 사거나 기구를 사거나 하는 등의 지원금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달 우수 진행 팀에 있어서 회식비를 지급하는 방안도 고려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양한 특강, 그리고 활동 장려 인센티브, 체계적인 스터디 운영, 지속적인 피드백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 지원금이 꽤나 필요한 상황입니다. 다양한 특강, 체계적 스터디 운영, 활동 장려 인센티브, 지속적인 피드백 모두 현재 CMD가 가진 예산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CMD가 가진 예산도 이제 주기적으로 지급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산이 부족한 상황에 있고 컴퓨터교육과 유일의 학회라는 명성에 걸맞게 항상 퀄리티 있는 학회를 운영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학생회장]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딥러닝 발표가 있겠습니다. 딥러닝장님 준비되셨을까요?

[총무/Deep:Running장/CMD장] 잠시만요.

[정학생회장] 네 준비되면 말씀해 주세요.

[총무/Deep:Running장/CMD장] 네 화면 보이시나요?

[정학생회장] 네 보입니다.

[총무/Deep:Running장/CMD장] 컴퓨터교육과 러닝 동아리 딥러닝에 대한 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딥러닝은 현재 컴퓨터교육과 소모임 중에서 가장 많은 활동 부원 수를 보유하고 있는 동아리입니다. 딥러닝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현재 비정기적으로 모여서 러닝을 진행을 하고 있고 러닝의 특성상 많은 인원들이 모여서 달리는 것보다는 개인 훈련도 활성화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여태까지 이번 학기 시작하고는 총 두 번 활동했는데 학기 초에는 3월 25일쯤에 동작역에서 만나서 동작대교 반포대교를 도는 5km짜리 코스를 진행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다 같이 모여서 사진도 많이 찍었고요. 다음으로는 저희가 지지난주 토요일에 몇몇 부원들과 함께 남산 타워에 가서 이제 사진을 찍고 남산타워를 오른 경험이 있습니다. 저희 딥러닝은 다른 운동 동아리들과는 조금 다르게 같이 모여서 활동을 하는 것보다는 개인의 훈련이 더 중요한 동아리로서 현재 개인 훈련을 장려하거나 아니면 앞으로 더

많은 활동을 기획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정학생회장]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마지막 차례인 것 같은데 HFS 발표가 있겠습니다. HFS장님은 오늘 불참하셔서 대신 대리인으로 김민지 학우님께서 발표하실 예정입니다.

[HFS 부회장] 화면 보이시나요?

[정학생회장] 네 잘 보입니다.

[HFS 부회장] 네 안녕하세요. 저는 컴퓨터교육과 클라이밍 동아리 HFS의 부회장 김민지라고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소모임 지원 사업 발표 목적은 다음과 같고요.

먼저 HFS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드리겠습니다. 소모임명은 깊이 우선 탐색 DFS에서 영감을 받아서 높이 우선 탐색 HFS로 지었습니다. 편하게 줄여서 흐프스라고 불러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흐프스는 23년 올해 3월 2일에 컴교 5명으로 시작해서, 현재 23학번에서 18학번까지 총 22명의 부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왼쪽은 첫 번째 첫 활동 사진이고요. 두 번째 오른쪽 사진은 7월 29일 최근에 활동했던 사진입니다.

다음은 소모임 설립 목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클라이밍은 함께하면 즐거움이 2배 이상이 된다는 스포츠라는 그런 이름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클라이밍이라는 운동을 컴교인들과 함께 즐기기 위해서 흐프스를 설립하였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목표 1순위는 컴퓨터교육과 사람들과 클라이밍을 하면서 친목을 다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순위로는 클라이밍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운동 액티비티 등을 함께 해보면서 과 활동을 활성화함에 저희가 목표를 두고 설립을 하였습니다.

여기까지 소모임 소개와 목표였고요. 지난 1학기과 여름방학 동안의 활동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흐프스는 기말고사가 있는 6월을 제외한 지난 6개월 동안 매주 최소 1회 이상 클라이밍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달력으로 좀 보여드렸는데요. 3월부터 7월까지 이렇게 일주일에 최소 1회 이상 클라이밍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주로 신입 회원의 클라이밍 교육과 기존 회원의 클라이밍 활동으로 구성해서 진행을 했고요. 학기 중에는 알레 클라이밍 해화에서 활동했고, 여름 방학에는 강남, 종로, 강동 등등 원정 클라이밍을 다녔습니다. 이렇게 활동한 사진과 영상들을 동아리 인스타그램에 올려서 꾸준히 활동하는 흐프스를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약 40개 정도의 게시물을 업로드하였고요. 인스타그램 주소는 오른쪽에 나와 있다시피 다음과 같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스토리도 위에 되게 점점점점으로 되어 있다시피 저희는 활동을 되게 활발하게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 보시면 여기는 저희 사진들을 캡처한 사진이고요. 되게 화목한 모습을 볼 수 있죠. 한 학기 동안 이렇게 많은 부원들이 모일 수 있다는 점에 저희도 많이 놀라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름방학 7월 1일부터 2일에 가평 빠지로 MT를 다녀왔습니다.

MT를 통해서 회원 간의 친목을 다지는 매우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저희의 귀여운 영상도 보실 수 있는데요. 궁금하시면 인스타그램에서 더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흐프스의 과거와 현재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지금부터는 흐프스의 미래 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주 1회에서 2회 클라이밍 정기 운동을 똑같이 진행할 예정이고요. 2학기과 겨울방학에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정기 운동으로 길러진 실력으로 2학기 말에는 흐프스 클라이밍 대회를 개최하려는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예산과 지원금 활용 방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클라이밍 활동 중에 발생하는 비용들을 제외하고 소모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은 본 소모임의 가장 큰 행사인 클라이밍 대회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학기 말에 개최 할 클라이밍 대회 첫 번째 예산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모임 주 클라이밍장인 알레 클라이밍의 하루 대관료 85만 원에 회원들의 대회 상품 비용으로 인당 1만 원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대회 예상 인원이 약 15명 정도로 총 비용 약 1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하지만 과한 예산 지출로 판단되어서 대회 방식을 바꿔서 대관을 하지 않되 클라이밍장 1일 이용권 비용으로 사용하도록 2안을 한번 짜보았는데요. 클라이밍장 1일 이용료 인당 2만 원 대회 상품 비용 1만 원을 더한 3만 원에 예상 인원 15명을 곱하면 약 45만 원이 대회 예산으로 사용될 예정이고 소모임 지원금은 대회 예산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호프스의 특징점 좀 어필하고 끝내겠습니다. 첫 번째 저희는 회원의 스펙트럼이 정말 넓습니다. 23학번에서 18학번 휴학생 그리고 편입생들도 활동하고 있어서, 과 화합의 장을 형성하고 있다는 그런 저희 자부심이 있고요. 두 번째로 8월 6일부로 회칙을 만들어서 체계적으로 운영 중이면서 MT와 대회 등등 다양한 활동을 소모임 임원진들이 직접 기획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인데요. 앞서 설명드렸던 꾸준히 활동하는 스포츠 모임이라는 장점입니다.

컴퓨터에서 잠깐 벗어나서 스포츠 취미 활동을 꾸준히 할 수 있는 것이 호프스의 최대 장점이라고 생각을 했고 저희끼리 활동을 하면서 미래 계획도 하고 컴퓨터교육과 관련해서 많이 얘기를 나눌 수 있기 때문에 저희의 클라이밍 예산을 좀 많이 받고 싶어서 이렇게 발표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저희 호프스의 발표였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학생회장] 네 발표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 HFS를 기점으로 모든 소모임들의 발표가 끝났습니다. 지금 바로 제출까지는 아니더라도 여러분들 다시 한 번 더 다른 소모임들의 발표를 좀 상기해 주시고 그다음에 더 객관적이고 더 공정한 평가를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소모임 활동비 지원 사업에 대한 논의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고, 오늘내로 평가 작성하신 거를 모두 제출해 주신다면 저희가 수합을 해서 내일 아침에 바로 공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 이상으로 질문 있을까요?

[정학생회장] 없으시다면 그럼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두 번째 논의 안건을 하기 전에 저희가 구글 미트 잔여 시간이 없어서 제가 다음 구글 미트를 열 테니까 여러분들 바로 다시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구글 미트 퇴장 후 재입장)

[정학생회장] 지금 안 들어오신 분 누구누구 있을까요? 부회장님 혹시 인원 체크 한번 해 주실 수 있을까요?

[부학생회장] 유나, 예린 학우님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정학생회장] 네 감사합니다. 한 번 언급하고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학생회장] 최유나 학우님은 지금 회의하다가 중간에 일이 생겼다고 하셔서 들어오기 힘들다고 하시네요. 그렇게 되면 총 인원 방금 이제 결석 5명 출석 11명에서, 결석 6명 출석 10명으로 총원 16명으로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기님 다시 기록하실 준비되셨나요?

[서기] 네 됐습니다.

2. 확대운영위원회 오프라인 회의 날짜

[정학생회장]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확대 운영위원회 오프라인 회의 날짜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확대 운영위원회 오프라인 회의 날짜를 잡아보도록 할 건데 확대 운영위원회 회의 날짜를 왜 벌써 이렇게 잡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코로나도 이제 모두 거의 끝났고 2학기 동안에 오프라인 회의 날짜를 잡아서 여러분들이 지금 수강신청도 모두 끝이 났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잡아서 모두들 얼굴 보는 상태에서 학교운영위원회 회의를 진행하려고 논의 안건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프라인 회의 날짜를 잡기 위해서 몇 가지 정보가 필요한데 첫 번째로는 여러분들 이제 되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정학생회장] 잠시 회의가 지연되었던 점 죄송합니다. 다시 진행하자면 확대 운영위원회 오프라인 이제 회의 날짜를 잡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되는 시간이 필요한데, 학교 오는 날에 회의를 잡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고 굳이 그러지 않아도 상관없을 분도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엔투밋으로 올릴 건데, 여러분들이 가능하신 날짜를 모두 체크해 주시면은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확대 운영위원회 독방에다가 여러분들이 오프라인으로 참석 가능한 회의 날짜를 체크하실 수 있도록 엔투밋을 올렸습니다. 모두 여기에 가능한 시간들을 체크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정학생회장] 혹시 다들 체크하고 계실까요? 가능한 최대한 빨리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지금 불참하신 분들도 계시고 전부 시간표가 확정된 게 아니라서 모두들 선뜻 그렇게 나서기 힘들다는 건 알고 있지만 그래도 체크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정학생회장] 지금 들어와 계신 분들 중 확대 운영위원회 멤버이신 분들은 모두 체크하셨을까요? 체크 아직 안 하신 분 계실까요?

[정학생회장] 네 저희 10명 모두 체크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자면 우선 확대 운영위원회 회의는 저희 회장단 참여가 거의 반 필수적이기 때문에 저희의 일정을 기반으로 시간이 잡힌다는 점 양해 말씀드립니다. 일정들이 많이 안 맞는 것 같아서 회의 내에서 확정을 짓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나중에 이제 다른 확대운영위원회 멤버분들 모두 오셔서 투표했을 때 그때 한 번 더 그러면 확정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1. 소모임 지원 사업 발표

[정학생회장]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하고 있는 논의랑 좀 외람된 말씀이지만 이전에 논의했었던 소모임 활동비 지원 사업에서 제가 투표를 할 때 조금 더 명시를 했어야 했는데 명시드리지 못해서 조금 헷갈리신 분들이 많이 계셨던 것 같아요. 각 소모임장 여러분들은 본인의 소모임은 투표를 불가능합니다. 본인의 소모임을 투표하는 것은 불가능했고 본인의 소모임을 제외하고 다른 소모임들만 투표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공지를 드렸었는데 사실 이게 좀 제대로 여러분들이 알 수 있도록 공지가 된 게 아니다 보니까 많이들 이제 조금 헷갈리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했던 투표 결과를 전부 초기화시켜서 지금 다시 투표를 받으려고 하는데 모두 괜찮으실까요?

[정학생회장] 네 발표를 처음부터 한다는 게 아니라 평가만 다시 여러분들이 한 번씩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두 괜찮으실까요?

[COFA 부회장] 네.

[EGG 부회장] 네.

[정학생회장] 소모임장분들은 본인의 소모임을 제외하고 모두 투표 평가해 주시고 나머지 분들은 모든 소모임들 다 평가를 해 주시면 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바로 다시 다 평가 한 번씩만 다시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CE:BA장] 같은 설문 웹사이트에서 하면 되나요?

[정학생회장] 네네 같은 설문지 한 번만 더 다시 평가해 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확실하게 공지를 하지 못한 점 죄송합니다.

[악성코드장/2학년 부과대표] 기존에 자기 소모임 빼고 했는데도 다시 한 번 하면 될까요?

[정학생회장] 네네 다시 한 번만 더 해드리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정학생회장] 확대운영위원회 독방에 없으신 분들은 제가 지금 채팅에 올린 링크로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똑같은 설문지입니다.

[정학생회장] 네 모두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번거롭게 다시 해달라고 한 점에 대해서는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공지를 제대로 하지 못했네요.

2. 확대운영위원회 오프라인 회의 날짜

[정학생회장] 우선 다시 2번 논의 안건으로 넘어가 보자면 지금 좀 요일 되는 시간을 수합받긴 했는데 지금 너무 날짜랑 되는 시간이 좀 뒤죽박죽이어서 저희가 추후에 다시 한 번 더 웬투밋을 보고 그다음에 확대 운영위원회 독방에 다시 한 번 더 투표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그때 정해지는 날짜로 픽스돼서 매달 몇째 주 무슨 요일 몇 시부터 몇 시 그렇게 오프라인 회의를 진행할 것 같습니다. 혹시 관련해서 또 질의사항 있을까요?

[정학생회장] 없으시다면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 개강총회 날짜

[정학생회장] 다음은 개강총회 날짜입니다. 저희가 이번 확대 운영위원회에서 개강총회 날짜를 아예 못을 박겠다가 아니라 개강총회는 저희 회장단에서 개인적으로 개강한 주나 아니면 개강한 다음 주 첫째 주나 둘째 주로 생각을 하는 중인데 어느 요일을 하는 게 가장 학생들도 많이 올 수 있고 관심도 많이 가질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여쭙어보려고 이번 논의 안건에 넣었습니다. 저희 제가 개인적으로 조사한 결과 1학년들은 이제 화요일 목요일에 전공 과목이 하나 기본 프로그래밍으로 지금 전공 과목이 하나 있어서 그때 많이 몰린다고 이제 답을 들었습니다. 혹시 또 여기 계신 1학년 이민구 학우님께서 더 또 다른 요일 있을까요?

[1학년 과대표] 네. 말씀드릴 것이 일단 제 생각에는 기프가 월수도 있고 화목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 기프가 이제 첫 수업이 온라인이고 두 번째 수업은 오프라인인 걸로 알고 있어서 제 월화보다는 수목에 1학년 애들이 많이 온다라고 알면 될 것 같습니다.

[정학생회장] 수요일과 목요일에 많이 몰릴 것 같다는 말씀이시죠?

[1학년 과대표] 네 그리고 금요일 같은 경우는 창용디 수업이 있어서 아무래도 많이 못 모일 수도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정학생회장] 네 의견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이제 2학년들이 얼마나 어느 요일에 많이 올지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저희 2학년이 어느 요일에 많이 모일까요? 혹시 저희 확대 운영위원회 2학년 분들 지금 3~4학기 다니시는 분들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정학생회장] 아마 알고리즘 수업 때 많이 모이겠죠? 알고리즘 수업이 하루는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대부분이 다 월요일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월요일이 온라인으로 될 것이라고 그럼 2학년은 대부분이 모이는 게 수요일이랑 교멸미 있는 금요일이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부학생회장] 네.

[정학생회장]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3학년입니다. 혹시 확대 운영위원회 회의 안에 들어와 계시는 3학년 분들 중에서 좀 3학년 분들이 많이 등교를 하실 것 같다 하는 요일이 있을까요?

[HFS 부회장] 목요일이랑 금요일에 많이 등교할 것 같은데 목요일에 컴교교랑 컴퓨터 네트워크 수업이 있고 금요일에 운영 체제에 있어서 목금 많이 올 것 같습니다.

[정학생회장] 네 말씀 감사드립니다. 3학년 분들 중에서도 다른 의견은 또 없으실까요?

[정학생회장] 3학년 분이 더 안 계시군요. 그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저희 4학년 분들 중에서는 학교를 그래도 오는 날이 어느 요일인지 여쭙봐도 될까요?

[EGG 부회장] 시간표가 이제 4학년 되면 다 너무 달라가지고 잘 모르겠네요.

[정학생회장] 네.

[EGG 부회장] 그리고 일단은 개강총회 대부분 안 가지 않을까요? 다들 이제 학교에 관심들이 없어가지고

[EGG장] 사실 그렇긴 하죠 뭐 저도 그리고 시간표도 확정이 아닌 상태라서 4학년들은 대부분 졸업 요건에 맞춰야 돼서 시간표를 수정을 하다 보니까 딱히 뭔가 어떤 특정 날짜가 있다는 좀 애기드리기 좀 어려워요.

[정학생회장] 네 알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1학년들은 월수와 화목의 기본 프로그래밍 과목이 있는데 첫째 날에 온라인 두 번째 날에 오프라인이라서 수요일 목요일에 많이 몰릴 예정이다. 금요일은 창용디 때문에 오기 힘든 학생들도 있을 것이라라는 얘기가 맞을까요?

[1학년 과대표] 네 맞습니다.

[정학생회장] 네 감사드립니다. 2학년은 이제 전공 과목으로 수요일이나 금요일에 많이 몰릴 예정, 3학년은 목요일과 금요일에 많이 몰릴 예정, 4학년 분들은 각각의 시간표가 너무 달라서 어느 요일에 몰린다는 게 없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혹시 제가 요약한 내용 중에서 혹시 다른 점 있을까요? 혹은 다른 요일

에 또 몰릴 것 같다 하는 그런 요일 있을까요?

[정학생회장] 네 없으면 그러면 개강총회 날짜를 일단 1학년과 2학년이 겹치는 요일이 수요일이고 또 2학년과 3학년이 또 겹치는 요일이 금요일이라서 수요일 아니면 금요일에 한번 개강총회 날짜를 잡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 번째 논의 안건 마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또 질의 사항 있을까요?

[정학생회장] 없으시다면 논의 안건은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단위별 진행 상황 및 기타 안건

[정학생회장] 다음은 단위별 진행 사항과 기타 안건입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개인적으로 저희 회장단에게 궁금한 내용이라든가 아니면 이번 회의에 있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수강신청 관련 건의

[EGG 부회장] 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정학생회장] 네네.

[EGG 부회장] 이번에 수강 신청 관련해서 되게 많이 몇몇 주요 과목들에서 많이들 못 잡았다고 알고 있는데 혹시 교수님들도 그걸 잘 알고 계실까요?

[정학생회장] 제가 모든 교수님들과 컨택을 하는 건 아닌데 근데 일단 교수님들께서도 많은 증원 신청을 받기도 하였고 그래서 아마 모두들 알고 계신 거로 예상은 되지만 이게 쉽게 증원을 해드릴 수가 없는 게 어떤 사범대 평가 항목이 이제

[EGG 부회장] 네 그거 저도 다 알고 있는데 저도 이제 매년 이런 일이 일어나가지고 교수님들이 이 심각성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학생회 측에서 좀 강력하게 어필을 하지 않으면 뭔가 해결이 될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저는 이제 졸업하고 이제 다 과목도 들어서 상관없긴 한데 이게 또 내년에도 다음 학기에도 일어날 일이거든요. 사실 매 학기마다 반복된 일이라서 좀 과 차원에서 뭔가 해결 방안을 공식적으로 제시해 주거나 아니면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이 사태에 대해서 좀 얘기하는 그런 자리라도 있으면 좋을 것 같긴 한데 혹시 그런 게 없을까 해서요.

[정학생회장] 지금 저희 학생회 회장단 내에서도 이 얘기가 지금 굉장히 화두에 오르고 있는데 저희도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할지 우선 논의 중이고 저희가 과사 측에도 한 번 제가 개인적으로 문의를 넣었던 적이 있는데 거기서 나온 답변이 이게 쉽지는 않을 거더라는 어떤 답변은 어떤 교수님이라든가 과사에서 마찬가지로 쉽지 않을 거더라는 답변만 이렇게 오긴 하더라고요. 그래도 최대한 과사 측에서 교수님들께 연락을 드려서 사태의 심각성과 그다음에 이제 어떤 증원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조금 더 목소리를 내보겠다라는 답변을 받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좀 문제가 많이 해결이 안 된 것으로 저희도 인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 구체적인 방안을 저희가 생각은 하지 못했지만 저희도 사태의 심각성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저희가 교수님들과 이 컨택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사태에 대해서는 정말 유감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EGG장] 저 죄송한데 좀 추가적으로 얘기를 좀 덧붙이자면요.

[정학생회장] 네네.

[EGG장] 저는 그러니까 4학년이다 보니까 선배들 중에 조금 고학번 선배들이랑도 좀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중에 이제 10학번 선배가 하나 있어요. 10학번 선배가 하나 있는데 한 십몇 년 전쯤에도 이거랑 똑같은 이제 사범대 이제 검사가 나온 적이 한 번 있었는데요. 그때도 지금과 똑같이 계속 연차를 넘기면서 카드 돌려막기 하듯이 학생들을 너희 내년에 들어라 내년에 들어라 하는 식으로 계속 계속 내려서 3~4년이 지나고 나니까 해당 불편을 겪었던 학생들이 다 나가니까 거봐라 시간 지나니까 괜찮아지지 않느냐 하고 끝내버렸거든요. 그리고 그때 이제 결과적으로 어떤 방법이 안 나오고 그냥 카드 돌려막기 하면 끝나구나라고 한 번 끝내고 나니까 지속적으로 그 뒤에도 지금처럼 그냥 내년에 들어라 내년에 들어오라 해놓고 해당 인원들에 대한 수요 조사 하나 없이 지금 2년 동안 사실 지난 거잖아요. 재작년 한 2~3년 전부터 계속 이 이슈가 있었는데도 3년 내내 학교에서는 단 하나의 방법조차 생각을 해놓지 않았고 지금 와서 몇 명이 더 필요한지 확인해 보고 얘기하겠다고 얘기해놓고 증원 2개 신청권 줬으니까 이제 우린 끝이다라고 얘기를 해버리면은, 솔직히 말해서 일반 중요 과목은 물론이고 일반 과목도 분명 학생들 중에는 듣고 싶은 과목이 있을 거고 자기개발을 하고 싶은 수업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거에 대해서 단 하나도 어떤 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그냥 증원 2개 줬으니까 졸업은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면 학교의 의의 자체가 사실상 없는 거죠. 졸업장 따려고 무슨 자격증 취득하려고 학교를 다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약간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 자체가 좀 문제가 있고 이거를 학생들이 모르는 게 아니냐라고 뭐냐 얘기가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사실 여러분들 다 알고는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바보라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단순 졸업하고 그냥 끝나고 나서 문제가 아니라 어떤 전공을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서 학생들의 어떤 방향성이 많이 달라질 수도 있는 건데 그거를 이런 식으로 그냥 넘겨버리고 끝내는 거는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추후 재발 방지 대책이 확실하게 나왔으면 좋겠어요.

[정학생회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사태의 심각성을 더 인지하고 교수님들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더욱 학생 여러분들의 이런 수강 신청에 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또 다른 기타 안건이나 질의 사항 있을까요?

[정학생회장] 없으면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신 수강 신청에 대해서 저희가 꼭 힘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발생해서 저희도 많이 유감스럽다는 점 밝힙니다. 이상으로 현재 시각 2023년 8월 24일 오후 11시 54분 회의 장소 온라인 미팅으로 제8차 컴퓨터교육과 학대 운영위원회 회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늦은 시간까지 모두 고생하셨고 학대 운영위원회 멤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저희 회의까지 들어오셔서 발표랑 평가까지 해 주신 각 소모임장의 대리인 분들까지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오후 11시 54분 폐회>